

2017 년 4 월 9 일 “찾아오신 예수님(27) 제자를 밤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요 13:21-30)

<도입>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정점의 자리에서 가롯 유다에 대한 언급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수난과 십자가 죽음에 방아쇠를 당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1] 가롯 유다의 배경

가롯 유다(Judah of Iscariot)는 헤브론에서 몇 마일 남쪽에 위치한 가롯, Iscariot 출신입니다. 이곳은 유다 지역이며,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민족 독립 운동을 하던 자들은 셀롯 시몬, 베드로, 요한, 가롯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지를 대망했습니다. 오늘 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먼저 세우고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관점을 갖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12:6). 이로 보아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3 년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적 행하심에 놀라고, 가르침에 감동 받고, 주님의 성품과 행동에 친밀감과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2] 유다의 판단과 행동

그런 그가 은 30 냥에 스승을 판 것은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승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노예 한 사람 값 정도면 합당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 30 냥은 그들 문화에서 노예 값으로 익숙한 액수였습니다. 그를 비윤리적 패륜 제자로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던지를 탐색한다면 그의 관점을 통해 보편적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매각 행동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그 큰 능력과 사랑을 지닌 양반이 민족을 이리 경히 여깁니까? 민족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의 가치는 30 냥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운행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따라 정해 놓은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것의 뿌리는 자기가 옳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강할 수록 하나님의 위대하고 섬세한 섭리는 더욱 보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관점과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믿음 없는 인간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유다의 판단과 행동의 프리즘을 통해 분명히 보여진 것입니다.

27 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은 자기 욕구대로 밀어붙이려는 실행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까?

[3] 예수님의 판단과 행동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1 절.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은 언제부터인가 한 제자의 석연치 않은 태도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제 마음에 품은 것이 실행으로 옮겨질 것을 아시고 몹시 마음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은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엔 유다를 옳은 쪽으로 인도해주셔야 진정한 스승이며 참 구주일 것 같은데, 그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바를 행하도록 놓아 주십니다. 이것이 구주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관점과 계획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확신을 깰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와 설득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 계속 옳다고 지키는 나의 확신을 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자기 판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심령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담담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적개심과 분노를 풀고, 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풀어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종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맺음>

그래서 내 판단과 확신을 무장해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랑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밤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가 들어간 밤이 온통 세상의 밤이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믿는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 악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구원의 빛이 흘러 비쳐 나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밤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들>

1.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신 유다의 배경으로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건은 단순히 돈에 팔려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품고 그렇게 하였음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유다에 대해 생각나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2.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한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말리시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나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까?